

#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 안영혁 (충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마르바 던 저 | 김순현 역 | IVP

먼저 역자의 모험심에 대해 미리 밝혀두고 싶다. 저자인 마르바 던은 한글판과 유사한 제목을 포기하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In the Beginning, God)라는 제목을 취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주제를 선명히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글 역자는 저자가 포기한 제목을 도로 살려냈다. 그것은 할 만한 도박이었다. 어차피 내용 중 하나님 주체라는 저자의 의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창세기의 의미-더 자세하게는 창세기 1-3장이 가진 중대한 의미-를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와 역자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저자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역자의 주체성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글판 책이 겹치기로 생명을 얻은 것 같아서, 일말의 생기가 감돈다.

필자는 젊은 시절 호세 미란다의 「마르크스와 성서」(일월서각, 1991)를 읽고 크게 감동했다. 한 가지 주제에 성경 전체를 끌어 넣는 집중력이 대단했다.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마르크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견 통쾌했다. 마르바 던은 원래가 그렇게 통렬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조용한 침입자'라고 할까? 그녀는 오히려 창세기 1-3장을 거쳐가는 가운데 모든 신학적 주제를 걸고 넘어지는 조용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스타일은 정반대인데 집중력은 같은 느낌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창세기 1-3장은 적절하다. 어차피 창조는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기독교 기근 세계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래 신학 전반을 몰고 올 가능성으로 충만하다. 물론 우리는 마르바 던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만, 느닷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신학 역사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는 역시 역자보다 저자가 옳았던 것 같다. 깊은 의도로 말하자면 역자가 취한 제목은 신학 일반을 되풀이한 것이고, 저자의 제목은 그런 신학 일반에 하나님 주체라는 방향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마르바 던에게서 일종의 아프리카 스토리텔링 주술사 같은 인상을 받았다. 마르바 던은 생각보다 유명한 학자이다. 유튜브에 그녀의 강연이 돌아다닐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책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신학적 수준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신학적 수준을 충분히 어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신학적 탁월성을 가라앉히며 창세기 1-3장을 원래 창세기를 이야기하던 사람의 느낌으로 돌아가서 읊어내고 있다. 이것이 마르바 던이 이 책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공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아는 것 많은 먹물들이 먹물빛 다 제하고 진짜 소담한 이야기를 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던은 바로 그것을 해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분야를 막론하고 꼭 배워야 할 기독교인 글쓰기의 모범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집중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먼저 전체 18장의 독립성이 다소 모호해 보여서 개개의 장이 가진 정체성을 밝히려도 덤벼들어 보면, 무엇인지 주변의 장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으로는 뚜렷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손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크기에 기껏 240페이지 정도의 책이고 이야기 같아서 가볍게 여기다가는 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다 읽으려면 참 여러 번 다시 음미해야 하는 책이다. 그래서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다. 좀 집중이 되도록 쓸 수 없었나? 그리고 보면 이 책은 가벼운 스토리텔링 같아 보이면서도 다른 여러 신학 분야의 지식이나 인문학,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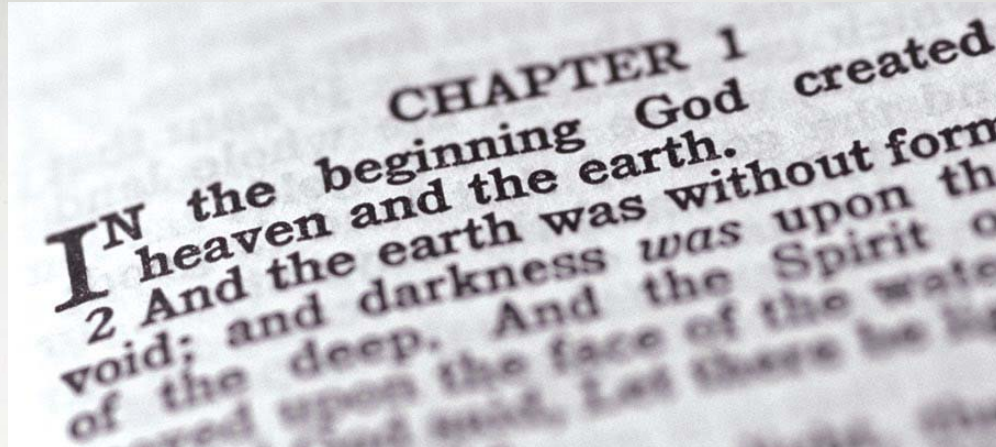
회과학의 선지식이 필요하다. 던은 신학으로 말하자면 구약 신학에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고, 인문학으로 말하자면 결코 보통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신학적 담론 같은 것을 펼치지 않는다. 인문학적 상식에 매우 견고한 학자라는 말이다. 딱히 사회과학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태에 대한 던의 지식과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다.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본에 구약신학과 인문학적 감각 그리고 삶으로서의 생태적 관심이 어우러진 만만치 않은 책이다.

아차! 그리고보니 저 스토리텔링이 실은 문제의 핵심이며, 던이 뛰어난 영성신학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원래 영성신학은 '모든 종류의 하나님 경험의 진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던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와 자신의 감성을 동원하여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유진 피터슨의 책들을 보고 찬탄하곤 하였다. 영성신학자가 한 권 한 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담아내는 방식이 여간 해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던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는 말하자면 창세기 저자의 하나님 경험도 드러내고,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경험도 드러내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 마디 덧붙이는 던의 경험도 드러난다. 던은 그렇게 자신의 영성신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내용 이야기를 하겠다. 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창세기 1-3장의 쟁점이라고 한다. 사실 모세5경 중 레위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예전서이다. 그러나 창세기가 예배를 말한다라는 것은 예전서라는 말이 아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흔적으로 충만하고, 그 흔적의 본연을 따라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절로 예배가 되고 만다는 의미에서 창세기 1-3장은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던은 창세기 세 장에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주체, 하나님 주어를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예배이다. 마치 우리가 법의 법다움을 따라가다가 자연법을 이야기하듯 예배의 그 원래적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이다. 즉, 저자는 창세기 1-3장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필자는 창세기 1-3장에 예배라고 하는 말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매우 당연한 것을 터니 잘 이야기해주었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면서도 예배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진술이다. 레위기에서 예배 방법의 골격을 발견한다면,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예배하는 인간의 근본 정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1부에서 이렇게 운을 댄 다음 2부가 꽤 길게 이어지는데, 그것은 7일간의 창조가 실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운을 맞춘 예배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1부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2부가 단지 1부의 입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세계를 맛깔스럽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세계관의 유려한 전개이다. 그 또한 예배이며 깊은 영성이다.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의 강조는 특히 더 인상 깊었다. '우리는 정말 뭘 하느냐고 이렇게 바쁘게' 하면서 그런 인상에 깊이 매료된다. 물론 저자의 글발이 놀라운 것이지만, 기실은 저자의 글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뿌려 놓으신 흔적이 놀라운 것이다. 예배학자들은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시간 세계를 이끌어 내신 다음 여전히 영원의 질서 가운데 계시면서도 흔쾌히 사람들의 시간 질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쉬셨다고. 안식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라는 점이 놀랍다.



턴은 4부로 구성된 각 부분이 딱 떨어지게 내용을 나누어 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2부에서는 창조된 자연세계 자체를 찬탄하고, 3부에서는 그 자연이라는 것이 체계를 이루어 관계 맺는 것에 주목한다. 물론 이것도 인간이 온 세계와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여기서는 남녀 관계에 깊이 주목함으로써 턴의 페미니즘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가족을 이루기 위해 여자가 집을 떠나 남자의 집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다. 고대 종교서적이라는 면에서 남성 중심적인 특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흔적만은 쉽사리 그런 고대적 진술 방식에 먹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턴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었고, 이 또한 턴의 경험이며 그녀의 영성이다.

4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화하고 좀더 상세히 기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딱 들어맞지 않고 빠져거리는 부분이 있다. 턴이 이런 빠져거림에 대하여 현상 중심의 기술을 한 것은 참 적절하다. 신

학을 우겨 넣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있는 알력에 대하여 신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가가려고 한 것이 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기도 하는 인간이 혹은 기독교인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치우되거나 더듬거리며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거구나!'

필자는 원래 박사 과정에서 영성신학을 연구했다. 개신교만의 기본 영성신학 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조그만 주장이었다. 신비와 금욕 및 수련을 핵심으로 하는 정교나 가톨릭의 영성과 달리 개혁가들이 보여준 믿음과 일상적 삶의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저들의 영성신학은 걸핏하면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신비적이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성부 하나님께 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읽는 내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다루는 주

제 자체가 창세기인 탓도 있겠지만, 턴도 기독교 중심에서 신론 중심으로 옮겨가려는 경향과 유사한 면들을 보여주었다. 칸트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신앙은 다소 미신적이라고 여겼고, 20세기 후반부 영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C.S. 루이스가 얼마간 칸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입증하려고 했다. 우리 시대 신학자들은 자칫 이런 경향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할 수 있다. 필자는 턴도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런 경향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두고 싶다. 창세기를 다루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다 배웠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구원론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러티브 같은 것을 어떻게 결부시킬지 고려했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성신학에서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한 번쯤 이야기해도 될 듯하다.

산문이지만 신앙적 운문의 느낌을 주는 책으로, 문학적으로 창세기 1-3장과 닮았다. 창세기 1-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의 문학성을 자신의 해설에 실현시켜낸 아름다운 책이다. 좀 더 시간을 내어 야근야근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안영희**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일반대학원(Ph.D.)에서 공부하였다. 현재 예본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강의전담교수이자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부소장이다.